

고흥 장수 비결 찾는다... ‘백세인 연구조사’ 착수

고흥군·전남대병원 백세인연구단
군내 95세 이상 어르신 65명 대상
식습관·가족·생활환경 등 조사
11월 결과...고령화 시대 자료 활용

국내 대표적 장수 지역인 고흥군이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과 손잡고 장수 연구조사에 나선다.

고흥군은 지난 1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공영민 고흥군수와 이번 연구조사를 이끄는 윤경철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장(전남대병원 부원장)을 비롯해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 한재영 전남대 노인 의학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인 연구조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화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연구는 고흥군 거주 95세 이상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식습관, 가족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파악함으로써 건



전국 최고 장수지역인 고흥군이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과 함께 지난 1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백세인 연구조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강과 장수가 개인적 특성 및 생활환경인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2주간 고흥군 16개 읍·면을 방문하며 대면조사를 갖는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대책과 건강정책 등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흥군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10만명 당 78명이나 되는 전국 최장수 지역이다.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는 국내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화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공식 출범했으며,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노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에 전념해 오고 있다.

노화과학연구소는 광주·전남지역을 장수·농촌·도시지역으로 나눠 총 5차례의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전남 구례·곡성·담양과 전북 순창의 장수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조사를 펼쳤으며, 농촌지역은 지난 2023년 화순 군에서 그리고 도시지역은 광주 동구·서구(2023년)와 북구(2024년)에서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윤경철 연구소장은 “이번 고흥군 연구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내 장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인 만큼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조사결과가 향후 고령화 시대에 건강 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백세인 연구 조사 결과가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백세시대 모델’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작경 기자 giju@kwangju.co.kr

광양시 홍보대사 조승환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5시간 20분 세계신기록 달성



광양시 홍보대사 겸 국제환경운동가인 ‘맨발의 아이스맨’ 조승환이 중국 장가계에서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진>

조 씨는 지난 10일 한중문화교류국제미디어와 중국세계일대일로 공소연맹 문화부 초청으로 열린 행사에서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에 도전해 5시간 20분을 기록, 종전 자신의 기록(5시간15분)을 5분 더 늘리며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조 씨의 이날 도전은 얼음 위에서 묵묵히 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오는 11월14일 미얀마 고마다사원에서 5시간 35분에 도전해 또 한 번 세계신기록 경신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근로자 폭염재난 예방

순천시 산단 순회 캠페인

순천시가 폭염에 따른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폭염재난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율촌산단을 시작으로 해룡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주암농공단지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순천시, 산단협의회,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5대 수칙(물·그늘·휴식·보냉·응급조치) 준수와 충분한 수분 섭취,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등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산업단지 내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 산업단지 내 그늘막 12개소 설치와 근로자 보냉용품(쿨스카프) 1500점, 얼음생수 3000개를 배부하는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 한달 여행하기

곡성군 참가자 모집

경비 하루 10만원 지원

곡성군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남 한 달 여행하기 - 곡성편’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는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질적인 여행 경비를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 중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곡성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여행 기간은 8월부터 11월 사이 7~10일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나, 곡성군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곡성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SNS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필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lady51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27일에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여수시 연안 해역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사업비·액화산소 등 추가 확보

여수시가 연안 해역 이상수온 대응사업비 1억 2000여만원을 추가 확보하며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수온 상승으로 양식 어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상수온 대응사업을 위해 국비 1억 1040만원, 시비 1440만원 등 총 1억 248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여수 해역은 지난 7월 29일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고 여수 전역으로 주의보가 확대된 상황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수온이 더욱 상승해 경보 단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수온은 용존산소 감소를 유발해 양식어류의 폐사 위험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 어가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추가 예산으로 액화산소 용기 충전 물량과 해상 운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선 액화산소 충전 물량을 기존 880통에서 750통을 추가해 총 1630통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액화산소 해상 운반 지원 횟수 확대를 병행해 현장 공급을 신속히 하고 양식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액화산소는 고수온으로 감소한 용존산소를 보완해 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추가 확보했다”며 “액화산소 용기 충전과 해상 운반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긴급 대책을 지속 추진해 양식업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양식어류의 생존과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조피볼락(우럭) 치어 긴급 방류를 병행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연안 해역의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충전 물량 750통을 추가 확보해 총 1630통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광복 80주년 음악회 내일 벌교에서 열린다

채동선음악당서 성악·오케스트라

보성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벌교 채동선음악당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벌교의 고향시, 벌교 칸타타’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민족음악가 채동선의 선율과 조성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서사가 만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쟁, 분단과 통일에 이르

기까지 한 세기 가까운 민족의 고난과 희망, 분열과 화해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감동의 무대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총 4악장 15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해설과 영상, 성악, 오케스트라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을 역사와 예술의 시간 여행으로 이끈다.

벌교는 민족문학의 거장 조정래 작가와 한국 근현대 민족음악의 선구자 채동선 선생을 배출한 예술과 저항의 고장이다. 이번 공연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이 지닌 예술적·역사적 상징성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김정호 예술감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벌교라는 공간과 채동선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음악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울림으로 관객과 역사적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